논술 (인문계B)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1)

평판은 개인, 집단 또는 조직에 대한 공중의 의견이나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평판은 학문, 예술,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나 온라인 공동체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는 노력이 전개된다. 그러한 노력은 개인과 사회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뿐 아니라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노력이 나타난다. 좋은 평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평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평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재가 된다. 그로써 서로 구별되는 다양한 세력들이 경쟁하는 평판의 장(場)이 형성된다. 그 장에서 평판이 거래된다. 예컨대 소비자는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지만 평판의 장에서 그것들에 대한 평판도 함께 구매한다. 그래서 소비자는 선택의 근거를 평판의 장에서 찾으려 하고, 생산자는 자신의 평판이 소비자에 의해 선택되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한다. 생산자가 좋은 평판을 위해 취하는 방법으로 광고나 화제 만들기, 사용자 설문 조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평판이 그 대상의 실질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와 관련한 사례로서 베스트셀러 소설을 살펴볼 수 있다. 많이 팔린 소설이 반드시 좋은 소설이라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판매 부수에 의해 그 소설의 가치가 매겨지기도 한다. 전문적 지식을 구비한 문학평론가들이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한 소설의 판매고가 형편없는 경우도 있다.

평판은 그 신뢰도의 면에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평판은 사실에 근거한 반면, 어떤 평판은 의도적으로 부풀려지거나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자 후기(後記)가 발휘하는 효력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평판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폭넓고 깊숙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이다. 그러한 추세 속에서 평판의 신뢰도가 보다 중요하게 대두된다.

(2)

우리는 평판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예컨대 당신은 상사와의 급한 약속에 늦는 사태를 감수하면서 낯선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줌으로써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한다. 자동차가 고장 난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당신의 새 실크 넥타이에 기름얼룩이 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선행과 관대한 태도가 당신의 평판을 보장해 주고, 결과적으로는 최초의 비용보다 큰 이익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는 평판의 효과를 알기 때문에 즉각적인 답례를 기대하지 않고 남을 돕기도 한다. 만약 거듭되는 입소문을 통해 당신이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면, 당신이 미래의 어느 날 다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기회는 그만큼 증대할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운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나는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선행이 복잡한 관계의 망 속에서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켜 선행의 당사자에게 그 효과가 되돌아오는 우연을 기대할 수 있다. '간접 상호주의'는 그러한 관련을 표현하는 개념어이다. "만일 내가 당신의 등을 긁어 주면 나의 이 좋은 행동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장려할 것이고, 언젠가는 누군가가 내 등도 긁어줄 것이다."라는 의미가 그 말에 내포된다. 간접 상호주의는 협력의 방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협력에 대한 인간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협력은 응분의 대가나 이득을 목적으로 한 비용의 지불이다. 평판에 대한 기대도 협력과 관련하여 파악될 수 있다. 우리는 간접 상호주의의 맥락에서 협력이 가져올 효과를 고려하여 평판을 구매한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 신경을 쓴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거나 우리가 한 일을 알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의 행위를 좌우한다. 개인적 수준의 자선 행위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가 미래의 그림자 속에 산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3)

똥깐의 본명은 동관이며 성은 조이다. 그럴싸한 자호(字號)가 있을 리 없고 이름난 조상도, 남긴 후손도 없다. 동관이라는 이름이 똥깐으로 변한 데는 수다한 사연이 있어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똥깐이와 한 시대를 산 사람들이 똥깐이를 낳고 똥깐이를 만들고 똥깐이를 죽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일부로 평범한 사람 조동관을, 자신들과는 다른 비범한 인간 똥깐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똥깐이 살다 간 은척읍에서 세 살 먹은 아이부터 여든 먹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관을 칭할 때 똥깐이라고 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똥깐이 보고 듣는 데서는 아무도 그를 동관으로도, 똥깐으로도 부를 수 없었다.

똥깐은 이란성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형 은관과 대략 일천 회 이상의 드잡이질을 벌였다. 그 드잡이질은 똥깐의 타고난 체격에 담력과 기술, 자잘한 흉터를 안겨 주었고 그가 은척 역사상 불세출의 깡패로 우뚝 서는 바탕이 되었다. 은관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걸 좋아해서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이미 합기도 삼 단, 유도 사 단, 태권도 삼 단의 면장(免狀)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조십단'이었다. 나쁘게 발음하면 그대로 욕이 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은관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그 별명으로 부르지 않았고 없는 데서도 혹시 신출귀몰하는 그들 형제가 주변에 없나 살피고 나

서 '똥깐이가 조십단하고 술 먹다가 전당포 주인을 깔고 앉은 사연' 등을 즐겼다.

그런 이야기가 은척읍 사람들에게 재밋거리가 된 것은 그때 은척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라디오를 보거나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볼 돈도 없었고 볼 생각도 없었으며 볼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은관 형제의 이야기는 그들의 뉴스였고 연재소설이자 연속극이며 스포츠였고, 무엇보다도 신화였다.

똥깐은 성장함에 따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개망나니짓으로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했는데 열다섯 살 때부터 외상 안 주는 집 깨부수는 일은 다반사요, 외상으로 밥 먹고 외상으로 반찬 먹고 외상으로 차 마시고 게트림하고 외상으로 만화 보고 외상으로 다른 아이들을 두들겨 팬 뒤 외상으로 약을 사주었다. (중략) 소문뿐, 누가 사실을 확인해 보랴.

(4)

동관이 살았던 은척읍의 인구수는 매우 크고 짝수이다. 그곳 사람들은 매 시기 두 사람씩 무작위로 짝을 지어 만나는데, 두 사람이 만나면 각자는 상대방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선행을 한 사람은 $c(>0)$만큼 손실을 보고 선행을 받은 사람은 $b(>c)$만큼 이익을 본다. t기에 어떤 사람에 대한 평판의 좋고 나쁨은 그 사람이 $t-1$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0기를 제외한 매 시기에 임의로 만난 두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평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은척읍의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 유형들은, 만나는 상대방에게 항상 선행을 하는 이타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유형 I', 만나는 상대방에게 항상 선행을 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유형 II', 그리고 평판이 좋은 상대방에게는 선행을 하지만 평판이 나쁜 상대방에게는 선행을 하지 않는 상호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유형 III'이다. 상호주의자는 상대방의 평판을 전혀 모르는 0기에는 항상 상대방에게 선행을 한다.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의 사람들의 비율은 시기별로 변화가 없고 모두 $\frac{1}{3}$로 같다. 은척읍의 인구 규모는 매우 크므로 각 유형의 인구 비율은 어떤 사람이 각 유형의 사람을 상대방으로 만날 확률이기도 하다.

t기에 평판이 좋은 사람들의 비율을 p_t라 하면 다음의 (식 1)이 성립한다.

(식 1) $p_{t+1}=\frac{1}{3}+\frac{1}{3}p_t$, 단 $t \geq 1$이다.

임의의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의 사람이 $t(\geq 1)$기에 얻게 되는 순이익의 기댓값을 각각 P_t^I, P_t^{II}, P_t^{III}라 하자. 이기주의자(유형 II)는 어떤 유형의 상대방을 만나도 손실을 전혀 보지 않는 반면 이타적인 상대방(유형 I)을 만나면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기주의자가

이타적인 상대방을 만날 확률은 $\frac{1}{3}$이므로 이기주의자가 $t(\geq 1)$기에 얻게 되는 순이익(=이익−손실)의 기댓값은 $P_t^{II}=\frac{1}{3}b$이다.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여 P_t^{I}와 P_t^{III}를 구할 수 있다.

Ⅰ. 평판에 관한 (1)의 관점에서 (2)와 (3)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75점)

Ⅱ. (4)를 읽고 다음의 논제에 답하시오. (25점)

1. (식 1)이 왜 성립하는지 설명하시오. 그리고 p_t가 (식 1)에 따라 변할 때 p_t는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보이시오.
2. 모든 $t(\geq 1)$에 대해 $p_t=p^*$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p^*는 위 문항 1에서 p_t가 수렴하는 상수이다. $t\geq 1$의 경우 P_t^{I}와 P_t^{III}를 구하고, $P_t^{I}=P_t^{III}$ 가 성립할 조건을 b와 c를 이용하여 표현하시오.

※ 유의 사항

1.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지 말 것.
2. 답안에 제목을 달지 말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Ⅰ은 900자(±50자)로 하고, Ⅱ는 자수에 제한 없이 쓰되 답안지의 테두리선을 벗어나지 말 것.